# 전두환 "단임 약속은 실수" 장기집권 야욕

## 1980년대 외교문서 공개

## 인권 침해국 낙인 우려

## 외신 지국폐쇄 암시하며 협박

## 일왕엔 '폐하' 칭하며 깍듯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국이라는 낙인을 피하려고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11일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밝혀졌다.

또한 공개된 외교문서에서는 전두환 정권의 비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유럽 인권침해국 명단서 빼라…총력 외교**='1983~1986년 구주의회(유럽의회) 인권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공동체(EC) 내 유럽의회가 1983년 5월 세계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꼽은 아시아의 인권침해국 7곳에 포함됐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1986년 4월 영국·서독·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 외교당국이 각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외교문서에는 담겨 있다.

당시는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본격화되고,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의 고문 폭로 등으로 국내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정순근 당시 주독대사가 한 행사에서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서독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보고한 전문(86년 2월23일 작성)을 보면, 유럽도 한국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심히 격앙된 어조로 '한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국제 여론하에서 어떻게 성과있는 방독을 기대하느냐. 지금 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정 대사는 보고했다.

**◇"단임 약속은 실수"**='단임(單任)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6년 5월 8일 방한한 조지 슐츠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슐츠 장관이 정권 이양과 개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없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 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임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헌법을 준수할 생각만 하고 공언을 안 했더라면 지금쯤 야당은 나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충고해준 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직선제 개헌을 향한 거센 사회적 요구에 시달리던 전 전 대통령의 다소 다른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88년에 (대통령직을) 그만둔다니까 통치권의 누수 현상이 있는지 이것을 이용해 재야세력이 학생과 연합하여 당장 직선제 개헌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국"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신도 예외없이 언론통제**=언론통제는 외신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5년 외교문서에는 홍콩에 본사를 둔 시사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FEER)'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다루자 우리 정부가 발끈한 내용이 담겨 있다.

FEER의 심재훈 서울지국장은 1985년 10월 31일 자 지면에 "전두환 대통령이 1986년 초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유럽 외교관들은 방문의 격을 놓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우려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이 사안과 관련, 이원경 당시 외무장관이 11월 5일 주홍콩 총영사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외무부 구주국장은 11월 1일 심재훈 지국장을 외무부로 소환해 '경호차원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유사한 사건 재발시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지국 폐쇄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적혀 있다.

11일 외교부는 30년 경과 외교문서(1986년도분 중심) 총 1474권(23만여 쪽)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왕을 "폐하"로**=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6년 히로히토(裕仁) 일왕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왕을 '폐하'로 칭하며 깍듯이 예의를 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4월 5일 유럽 순방길에 나섰을 당시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기내에서 발송한 '기상(機上) 메시지'에서 "폐하, 본인은 아름다운 귀국 영공을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폐하께 정중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적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본인은 1984년 본인의 귀국 방문 시 폐하와의 만남을 기쁜 마음으로 회상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폐하의 건안과 귀왕실과 귀국민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박근혜, 승마만 챙겨 돌아버릴 지경"

##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나쁜 사람'으로 찍혀 인사 조치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에 대한 관심 때문에 힘들었다고 법정에서 털어놨다.

노 전 국장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2013년 4월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판정 시비를 조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원하던 취지로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고, 이후 공직을 떠났다.

노 전 국장은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배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냐는 것이었다"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시는 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승마가 "냉정하게 말하면 정책적 관심 대상 밖"이고, 자신이 국장이 된 이후 "승마협회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데 대통령이 승마에만 관심을 가져 힘들었다는 것이다.

노 전 국장은 판정 시비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정윤회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력자 딸이 승마 선수라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정유라 씨가 2014년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과 관련 "만약 경기장 등 원래대로 개최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대표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아시안게임 참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마장마술 종목 특성이 말의 컨디션에 따라 워낙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朴, 블랙리스트 단체·인물에 보조금 지급 걱정"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치편향적 작품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김 전 장관 증언과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문체부 업무용 수첩에 기재했는데 그 사본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은 특검 측이 "수첩에 '건전 콘텐츠'라고 써 있는 건 무얼 말하느냐"고 묻자 "당시 대통령이 정치편향적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자꾸만 지급되는 걸 걱정하셨다. 그거에 대해 써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측이 "면담 당시 대통령이 문화 관련 보조금을 정치편향적 단체나 인물에게 지급되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 내용을 건전 콘텐츠라고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월 말 인터넷방송인 '정규재TV'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연합뉴스

#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영장심사…이번엔?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에서 8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지난 2월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영장심사로 기록됐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올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 때의 5시간 20분보다도 1시간 40분가량 연장됐다. 영장심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먼저 영장 범죄사실의 요지와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 전 수석측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심문이 장시간 지속하자 권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권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자 법률 지식을 동원해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칼빈슨호, 주말 한반도 도착…北 최대 열병식 '맞불' 전망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막강한 전력을 싣고 있는 미국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배수량 10만t급) 전단이 오는 15일을 전후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칼빈슨호가 한국작전전구(KTO·Korea Theater of Operations) 구역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말께 한반도 인근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항모 도착 전후로 북한은 현재 준비 중인 대규모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또는 인민군 창건 85주년(25일)에 실시할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초 '4월에 최대규모의 열병식을 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15일 또는 25일에 신형 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모전단은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항모전단 중심의 자체적인 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사주 풍수 ▶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앞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 설 팅 분 야

• 기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서양새마을금고 공고 제2017-1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가. 광주시 남구 서동 241-2
대지(199㎡), 3층건물(282.71㎡)
최저예정가격(₩481,566천원)

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 93-26
대지(168㎡), 2층건물(198.11㎡)
최저예정가격(₩420,172천원)

2. 입찰일시

2017. 4. 26. (10:00 ~ 11:20)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 문의 062-720-2871

서양새마을금고